

2011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 최고액우표 및 최초우표 전시 뽀로로우표 등 우표수집에도 열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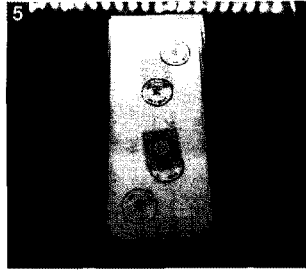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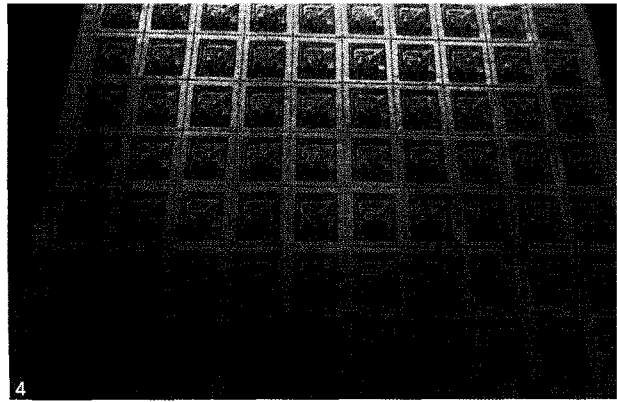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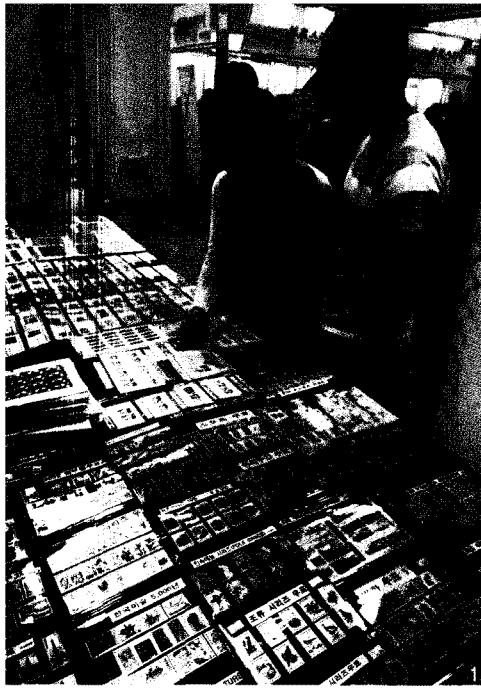
평가액이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고가 희귀 우표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문위우표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바로 2011 대한민국 우표전시회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2011 대한민국 우표전시회'를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닷새 동안 삼성동 코엑스(COEX) A홀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5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우표전시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우표전시회로 '우표로 만나는 지구촌 문화'를 주제로 세계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 1억 6천만원짜리 우표 전시한 한국우표 진품명품관

한국우표 진품명품관에서는 우리나라 우표 중 가장 고가인 1억 6천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산업도안 보통우표 20환 물결무늬 투문 전지'의 실물이 전시됐다. 1955년 제작된 것으로 최초 발행당시 10환, 15환, 20환, 50환의 4종 가운데 20환을 제외한 3종은 물결무늬 용지로 발행하였으며 수요가 많은 20환 우표는 두터운 발살무늬(줄무늬)가 들어간 특수용지로 2500만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20환우표가 모두 소진되자 남아있던 물결무늬용지로 추가 인쇄 발행하였으나, 용지가 바뀐 내용을 창구에서 해당우표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수집가들이 알지 못하여 남아있는 미사용 우표의 수량이 극히 적다. 이 우표는 완전한 전지형태로 남아있는 유일한 우표이다.



1. 2011 대한민국 우표전시회에서 판매용 우표를 관람하는 관람객들
2.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념 전시부스
3.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념 우표
4. 1억6천만원으로 평가되는 20한 물결무늬 전지
5.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인 문위우표

1884년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우표인 문위우표 전지와 문위우표가 발행되는 첫날 날짜도장을 찍은 초일봉투도 전시됐다. 문위우표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로 새로운 우편제도의 도입과 함께 5문, 10문, 25문, 100문의 다섯 종류가 만들어졌다. 갑신정변으로 5문, 10문 단 두 종이 20여일만 사용됐고 나머지 25문, 50문, 100문은 미발행우표로 남게 되었다. 현재 문위우표는 27장만 발견돼 평가액이 1억 원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역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도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승만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모든 취임기념우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 발행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념우표'와 함께 역대 동계올림픽 기념우표도 전시돼 동계올림픽 영웅들을 담은 우표도 만나볼 수 있다.

### 우표작품 전시관

우표작품 전시관에서는 우수 우표작품 145작품 450여 점이 전시됐다.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은 우편사 부문에 출품한 오병윤(고전과 현대우취회)씨의 '대조선 개항기의 외국우편'이 차지했다. 국무총리상은 테마우취 부문에 출품한 김경한(한국테마클럽)씨의 '콜럼버스와 신대륙(역사적 배경과 항해 그리고 그 이후)' 과 청소년우취 부문에 출품한 이흥구(원주진광중3)군의 '지구를 넘어 우주로'가 선정됐다.

지구촌 우표문화관에서는 대표적 문화 전과 매체인 우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우표와 편지가 전시됐다.

###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표 만들기 체험과 보물찾기와 퀴즈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나는 야! 우표 디자이너”에서는 어린이들이 우표로 만들 원화를 그려 보고 그린 그림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우표를 만들고, 우표와 연극 미술 무용 등 복합장르를 접목한 ‘우정의 따로 똑같이’ 예술체험교육도 마련돼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 올해의 우표취미주간 특별우표

올해에는 우리나라 근대화화의 뛰어난 작품들 가운데 한국화 네 작품을 소개했다. 조선시대의 화풍을 잇는 근대의 마지막 화가로 꼽히는 조석진의 작품으로 조선시대 수묵담채의 정형을 보여주는 ‘산수’, 단순한 모사가 아니라 옛 화보를 근대적 조형성과 작가의 서정을 반영하여 표현해 낸 지운영의 ‘장송낙일’, 근대의 새로운 미인도를 보여주고 있는 채용신의 ‘운남자상’ 그리고 질주하며 뒤편 말을 역동적으로 그려 낸 김기창의 ‘군마도’를 우표와 소형시트로 만나볼 수 있다. ↻

## 한국우정의 선구자 홍영식 (1855~1884)

조선 후기의 문신, 개화당의 중진으로 1881년 제2차 '조사사찰단' 1883년 보빙사의 일행으로 해외를 방문하여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돌아와 새로운 우편제도를 도입하였다. 1884년 고종의 칙령으로 제기를 얻어 우편업무를 관장할 우정총국을 개설하였고, 초대 우정총판을 역임하였다. 우편제도에 관한 규칙을 담은 '대조선우정규칙'제정을 통해 근대 우편제도의 법규를 마련하고 새로운 우편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나 1884년 12월 우정총국 축하연에서 일어난 갑신정변의 실패로 사사되었다.